

'92년도 복원골

여학생회 일꾼 모꼬지

인문대 여학생회 평점부 노란옥



세찬 바람 이겨낼 깊은 뿌리

내리렴, 너 자주 여학생회야.

+연계 : 백두오르기 48년 1월 29일 (물) ~ 30일 (나모)

+어디서 : 바다가 보이는 구룡포 수련원

+누가 : 큰 힘 쓰는 제 7대 총여학생회, 단대 여학생회

## ## 여는 시 ## ##

## 아름다운 성과 사랑을 위하여

여자이기 때문에  
너희의 무지와 잘못된 용서받는다.  
그러나 또한 너희의 잘못은

여자이기  
용서받는다는 이유로 고통을 겪은 것이다.

이 시대의 여자는  
이 시대가 만든 것일 뿐이다.  
너희가 차별당하는 것 만큼이나  
너희와 동시대의 남자들 또한  
억압당하고 있다.

너희는 이제 배워야 할 것이다.  
진정으로 세계사의 반을  
너희가 배워야 하는 법을  
누가 너희를 인간 이전의 여자로만 만들었는지  
내가 정말로 인간이기 위해서  
무엇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이땅의 젊은 여성들이여  
이제 스무 살의 어디쯤에 서서  
너희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함께  
가자고요?!



여학생회 일꾼들의 환한 웃음을 보면서 묵은 해의 걱정을 털쳐 버립니다.  
'저음이라 툭 잘 못 하면 어쩌나, 빠진 것은 없나' 혼자 하던 걱정이 여학생회 일꾼들의 분주한 모습에 덮여 버립니다.

그동안 방학이라 자주 뵙지 못하였던 일꾼 여러분,  
함께 부대낄 수 있는 자리, 여학생회 일꾼 모임을 만나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갈 길이 보입니다. 모두의 밝은 웃음 속에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여학생회 일꾼은 여성문제연구모임을 건설·강화하려 하고 어떤 일꾼은 여성문제가 무엇인지 얘기할테고 어떤 일꾼은 정신대 문제를 토론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모이고 모여 우리들의 역사는 시작합니다. 1992년 한 해동안 끊임이 없는 작은 노력 하나하나와 씩씩한 실천은 '여학생회'에 대한 명쾌한 규명이 되게 하고 여성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씩씩한 여학생회 일꾼 여러분,  
1천 여학우가 다시 학교로 돌아올 때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3월 총선이 빠른 걸음으로 우리들 앞으로 오고 있습니다.  
자주의 노래로 학우들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민주의 당찬 걸음으로 총선을 맞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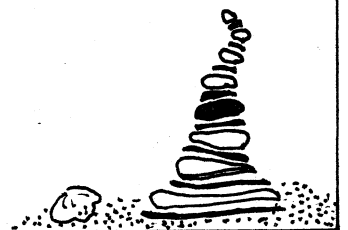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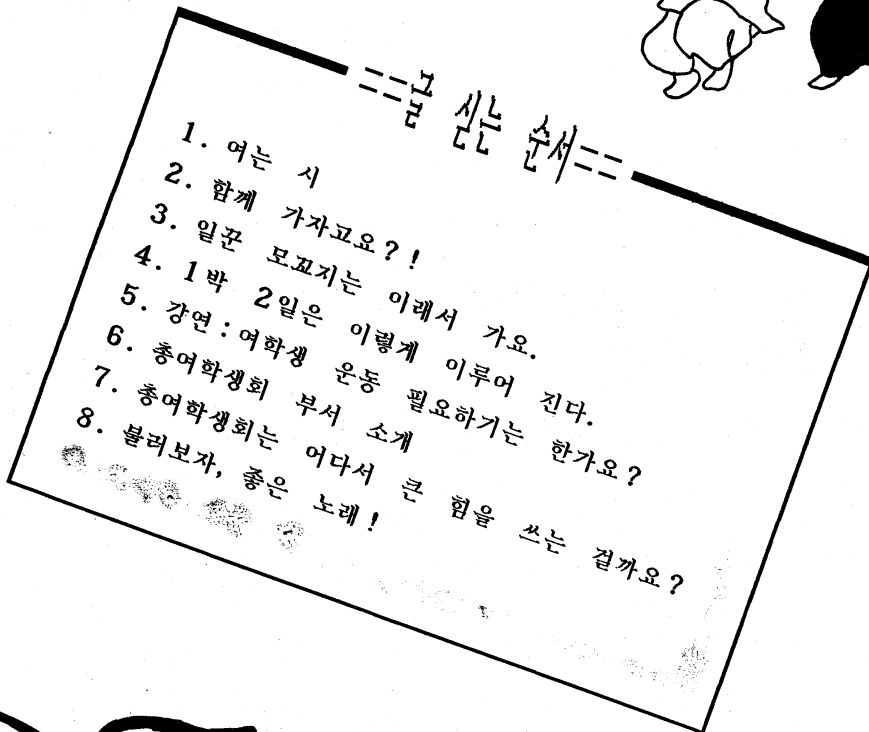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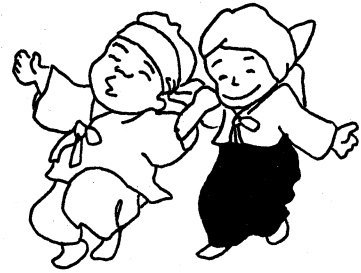
통일진군 48년 1월 2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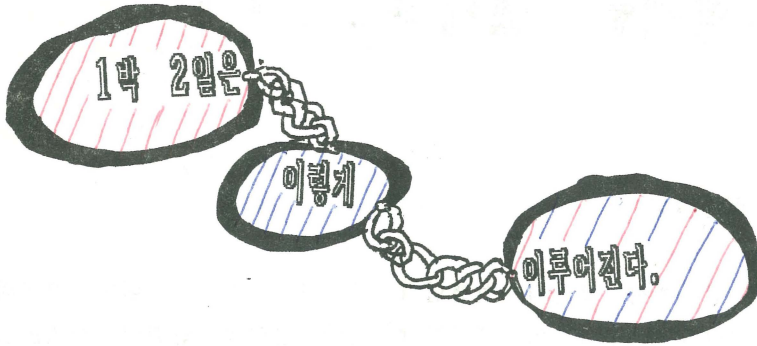
함께 가는 여학생회 일꾼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7대 총여학생회 이 경 숙 드림.

## \*\*\*일꾼 모꼬지는 이례서 가요.\*\*\*

일꾼 모꼬지는요, 한 해 동안 여학생회 공간에서 함께 일할 일꾼들이 처음으로 한곳에 모이는 자리로서, 1박 2일 간의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잘 모르던 일꾼들이 서로 친해지고, 여학생회 일 경험이나 여학생 운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일꾼들이 일의 감을 조금이라도 잡음으로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총여 및 단대 여학생회의 1년 사업계획을 함께 알고 서로 도와서 잘 하겠다는 힘찬 결의를 할 수 있는 장이 될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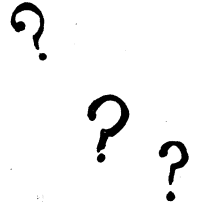
29일 (물)

- 07:30 . 야공 집합
- 10:00 . 출발
- 양 1:00 . 도착, 짐정리
- 2:30 . 점심식사
- 4:00 . 초청강연
- 5:30 . 분임토론, 총화
- 6:30 . 세로모임
- 8:30 . 저녁 식사, 휴식
- 11:00 . 집단놀이
- 12:30 . 뒤편이
- 새 2:00 . 농침 완료

30일 (나무)

- 07:00 . 기상
- 8:00 . 아침 제조, 난척
- 9:30 . 아침 식사
- 11:00 . 단대별 모임
- 11:30 . 총화, 종여 사업기조  
나누기
- 양 1:00 . 평가, 옹달샘
- 이후 종합과 결함.

# +++여학생 운동 필요하기는 한가요?+++



## 1. 여자를 셋이 모이면?

작년 가을쯤 여성 신문에서 오숙희 선생님의 “수다의 사회학”이란 제목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수다”와 “사회학”이란 단어의 연결이 신기했었는데 읽어 보니 정말 재미있고 수궁이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수다”란 흔히 여자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자들의 대화는 보통 신변잡기 등의 사사로운 내용이라는, 일종의 “경시”의 느낌을 띠는 단어로 여성에 대한 일반 적인 사회통념을 반영하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글에선 “쓰잘데 없는” 수다가 보여주는 사회학을 절묘하게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여자들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어진다고들 하는데 이말은 즉, 여자들은 모이면 뭔가 불필요한 (예를 들어 남의 험담이라던가) 시시한 얘기를 하고 그래도 남자들이 모이면 뭔가 중요한 일 (학문과 사회, 정치적인 것 등의)을 얘기한다고 여겨지는 보편적인 인식을 뜻하는 말이다.

그렇지만 알고 보면 남자들의 대화속에는 주변의 것들만 자기과시적으로 들어있고 정작 중요한 자신의 문제는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여자들의 수다는 자신의 문제로부터 출발한다. 주머니 사정으로 시작하여 국가, 세계경제까지. 그리하여 자신의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내고 사회, 국가, 세계는 자신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바로 “수다의 사회학”이 존재하는 것이다. —

여자들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어진다고요?

접시가 깨어지더라도, 억압과 착취만 깨어진다면 모여서 수다를 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간해방과 여성해방을 염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곳, 여학생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해 봅시다.

## 2. 여성문제, 있기는 한가요?

“여성문제” 이 말을 들은 어느 복학생 선배님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야! 너그들 맨날 여성문제, 여성문제 하는데 여자들한테 무슨 문제 있나?” 사실 여성문제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은 좀 모호하기는 하지만 위의 복학생 선배님 말처럼 여성문제란 말이 여자한테 무슨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여성문제”란 여성들이 단지 생물학적 성의 차이로 인해 부당하게 받는 차별과 억압을 의미합니다. 여성문제는 인류역사의 발전과정속에서 단계적으로 축적되어져 온 것으로 시대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현재의, 20C 말 한국사회의 여성문제는 조선시대 봉건적 유교이념을 거쳐 파행적 자본주의 구조의 발달과 더불어 더욱 골이 깊어져 전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봉건적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함께 사회구조 전반에 걸쳐 구석구석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릴때부터 받게 되는 성차별적 교육은 여성을 소극적, 순종적, 비주체적으로 만들며, 정치적으로는 여성의 역할을 가정으로 한정시키는 사회 인식과 더불어 반여성적 정책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현정권에 의해 많은 여성들이 아직도 정치는 자신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적으로는 자본주의 하에서 성상품화의 대상이 되어 여성이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되기 보다는 성적 대상으로 취급되는 풍토가 조성되어 유흥산업이 날로 번창하고 있습니다. (1984년 통계는 20대 여성들 중 직업적인 매춘 여성이 5명에 1명 꼴이라는 기막힌 사실을 보여줍니다.)

경제적으로는 사회적 성별분업 인식과 이윤추구가 최대의 목적인 비인간적인 자본주의 구조에 의해 고용차별에 의해 노동의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고용이 되더라도 임금차별, 직무, 승급차별 등 온갖 차별에 시달리고 모성보호는 커녕 가사노동 및 육아라는 이중, 삼중의 짐을 지게 됩니다. 또한 여성의 저임금은 전체 노동자의 임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여 계급차별을 더욱 심화시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를 들자면 끝도 없을 정도로 산적해 있는 이 땅 한반도에서의 여성문제는 여대생과도 끊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 ③. 여대생, 우리가 극복해야 할 여성문제도 있나요?

여대생은 우리나라 전체 여성들 중에서도 대학생이라는 사회속에서 이미 일정한 기득권을 보장받았다고도 할 수 있는 계급도 아닌 계층도 아닌 특수한 집단입니다. 그리고 대학은 우리나라 사회속에서 그래도 가장 민주적인 집단으로 평등 또한 표면적으로나마 잘 실현되고 있는 곳이기때문에 기층 민중 여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대생이 받는 차별과 억압은 훨씬 덜 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식민지 한반도에서의 여성문제는 여대생에게도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납니다.

대학 졸업과 동시에 우리가 부딪치는 취업의 문은 “여성의 일은 가정에” 라는 성역할 분리의 이데올로기에 밀려 같은 능력과 자격을 갖추어도 여성에게는 꼭꼭 닫혀 있기만 합니다. 채용에 있어 노골적으로 남자만 구한다는 광고는 남녀 고용 평등법 제정 이후 많이 사라지긴 하였으나 면접에서 떨어뜨리는 등 다른 수단과 방법에 의해 여자는 역시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고 맙니다. 또한 어렵게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임금, 승급, 직무에서의 차별과 모성보호의 전무함 등은 여성을 다시 가정으로 쫓아 버리기도 합니다.

대학 안의 생활에서도 여성문제는 나타납니다.

우리 학교만 보더라도 많은 여학생들이 학년이 높아져 갈수록 많은 학문활동과 자치활동, 과 행사 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다가 결국 과에서 떨어져 나가 몇몇이서 무리를 지어 다니며 개인적인 생활로 그쳐 버리게 되어 여자들은 고립 분산적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인간 관계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집단 생활로부터 유리된 여학생들은 개인적인 경험세계들에만 안주하게 되어 세계에 대한 협소한 인식에서 탈피하지 못하게 되며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주체적인 활동을 벌일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삼중지도의 유교 윤리에서 많이 벗어나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성차별 교육의 영향 아래에 있는 우리는 연애와 결혼을 인생의 최종목표로 생각하여 지식과 학문적 정열이 남 못지 않던 여학생들도 학년이 높아 갈수록 정열이 삭감되어 결국은 과에 여학생이 많으면 질(?) 떨어진다라는 소리를 남기게 되고 맙니다. “결혼 제일주의”는 여학생들의 결혼을 통한 계층 상승욕구를 보여주지만 실제로 지배계층으로 편입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런 생각이 얼마나 비현실적인가를 알 수 있지만 현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여학생들을 학문이나 진리보다는 상품광고가 조장하는 사치와 허영의 세계로 끌고 들어가 자본주의적 소비형 인간으로 전락시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또한 여학생들의 인식의 테두리를 좁게 만들어 전반적으로 사회적 문제, 특히 정치적 문제에 대한 여학생들의 무관심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물론 개인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사회적 존재로 규정받는 이상 사회구조적 억압으로 인하여 나타나게 되는 여대생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대생들의 내부에 존재하는 이런 모습들 외에도 봉건적이고 비인간적인 자본주의 문화들에서 양산되는 여성 억압적인 요소들은 가장 민주적이고 평등하다고 여겨지는 대학내에도 깊숙히 스며들어 있습니다.

EDPS라고 불리우는 음담패설로부터 남학생 위주의 과 생활 진행방식, 사범대의 7:3 입학제도 등 인식에서 구조적 문제로까지 눈 여겨 살펴 보면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너무 소소하고 별 것 아닌 것 같기 때문에 개인적 대응으로 그치거나 그냥 넘겨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작은 것으로부터 출발하며 사회 전반의 구조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대생의 특성이 이런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학생으로서의, 가장 진보적인 학문과 민주적인 활동, 그리고 가장 높은 정치의식을 보장받을 수 있는 특징도 함께 지닙니다. 억눌려 착취당하고 고통받는 민중들에 대한 사랑(이것은 곧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불의에 대항하는 투철한 정의감, 논리적인 인식 등은 여대생이 가지는 특성중의 하나이며 이것들은 다만 다른 것들에 의해 억눌려 있는 것 뿐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특성들을 어떻게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가입니다. 그 시작은 이제까지의 성차별 교육과 봉건적 이데올로기, 잘못된 사회구조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집단적인 몸부림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 4. 그래서...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억압을 뚫고 해방을 향하려는 몸부림은 개인적인 해결로 치부해 두기엔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과 내의 성차별적 요소들에 대한 대항은 혼자 하는 것 보다는 둘, 둘 보다는 다섯, 그보다는 과의 모든 여학생들이 한데 뭉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것입니다. (음담폐설에 대하여 과 여학생회 차원에서 대자보를 한 번 내어 보십시오. 혼자 문제들을 지적했을 때 쉽게 무시되어 버리던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십시오)

이렇게 작은 일부터 우리들의 힘을 모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임, 조직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여학생 소모임, 여성문제 연구모임, 나아가 여학생회가 필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임들을 통하여 여성과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인식들을 배우며 널리 확산시켜 나가고 여성해방과 인간해방을 염원하는 힘들을 모아 이 땅의 모든 억압과 착취의 틀들을 부수고 해방을 향해 나아갈 때 나와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세상의 절반을 이고 사는 여성들이 온전할 수 없을 때 나머지 절반인 남성들 또한 온전할 수 없듯이 여성해방 없이 완전한 인간해방은 없으며 인간해방 없이 여성해방 또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 5. 여학생 운동이란 그림?!

여학생 운동이란 바로 여학생이 주체가 되어 이러한 여성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즉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고통과 억압, 착취를 거부하고 여성의 자주적 권리와 지향을 획득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학생 운동은 바로 억압과 착취가 어디로부터 기인하는가를 명확히 인식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함께하고자 곳이 여학생 소모임, 여연이며 그것을 바탕으로 힘을 집중시켜 여학생 운동을 활발하게 펼쳐 나가는 우리들의 조직이 바로 여학생회입니다.

**\*\*여학생 운동,**

**바로**

**우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

XXX이야기 해 봅시다. XXX

**하나:** 난 여대생 문제가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두름:** 해결 방법은 이것이 아닐까요?

**세엣:** 여학생 소모임은 이런 형식이 좋겠어요.

**네엣:** 여학생회는 이런 일을 해야하지 않겠어요?



# 총여학생회

## 부서

### 소개

+사무부는요: 이전의 총무부와 기획부를 한데 엮친 체계로서 총여 집행부의 집행력을 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담보해 내기 위한 것입니다. 총여의 정책과 노선을 입안하고 이에 맞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며 집행단위의 총화, 조절, 전체 집행부의 조직관리를 담당한다. 또한 전체 집행위가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생활의 혁신, 품성의 혁신 등의 사업여건을 마련해 주는 일을 한다 이렇게 주요한 많은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사무부내 역량강화가 최우선 과제이다. 가장 시급하게 사람 마련이 요구된다.

+학술부입니다: 전방 속의 안코라고나 할까. 여학우들의 의식화와 조직화를 위한 일련의 교육활동을 담당한다. 여학생 운동의 내용성을 담보하기 위해 여성학 학습목록을 고민하며 여연의 강화를 위한 일들을 한다. 그리고 매 행사시 학술에 관계된 부분을 담당할 것이다.

+선전부: 7천 복원 여학우의 지도와 단결의 구심체인 총여학생회의 사업 내용과 준비, 진행상황을 사전에 충분히 공개하여 여학우들 자신의 자치조직인 총여학생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선전부의 역할이다. 선전부의 체계는 매시기마다 중요하게 제기되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우리들의 생활속에서 간과하기 쉬운 생활, 문화적인 측면을 기획대자보를 통하여 학우들과 함께 고민하는 역할을 하는 교육선전분과와 총여학생회의 중심사업의 내용과 행사에 대한 홍보를 맡는 일상선전분과로 나뉘어 진다.

+인권복지부: 여학우들이 생활속에서 겪게 되는 인간으로서의 권리 침해에 대응해 나가고 학내 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불편함을 덜기 위한 복지 사업에 힘쓴다. -중점사업: 중앙 여학생 휴게실, 도서관내 여학생 휴게실, 여성학 도서, 여성백화점, 화장실 비상벨

+안녕하세요, 사회부는 이런 일을 해요: 어머니의 시장바구니를 가볍게 만들고 아버지의 어깨를 무겁게 만드는 위대한 보통사람에게 불벼락을 내리고 사치와 향락에 젖어 있는 우리 생활 주변에 진정한 대학문화를 창출하려고 합니다. 아직 단대 사회부 일꾼이 적은 관계로 무척이나 외롭습니다. 언제든지 누구나 총여 사회부로 찾아 오세요.

가슴이 따뜻한 사람과 만나고 싶습니까?

총여학생회로 오십시오.

곧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학생회 광고 협의회

+탁아부: "사람을 구합니다. 아직 일꾼 마련이 안되었길랴요."

정말 탐나고 예쁜 일자리에요. 91년 총여 사업중에서 7천 여학우들에게 가장 사랑받았던 일이랍니다. 빈민지역 탁아소에 자원 봉사자를 소개해주고 후원회도 마련해서 작지만 경제적인 림까지도 보태드리구요. 마음이 따뜻한 여학우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지금 신학 1층 여학생 화장실 맞은편에 있는 총여학생회로 달려주세요.

+편집부: 편집부는 총여학생회 사업속에서 생산되는 여성운동에 관한 제정책을 인쇄화된 매체로 외화시킴으로써 총여학생회가 지향하는 점들을 여학우들에게 정확하게 점들을 여학우들에게 정확하고 올바르게 전달하여 총여학생회와 여학우들을 이어주는 단위이다.

+과 여학생회 건설, 강화 특별 소위: 이름 참 길고 그야말로 특별나죠?

사실이 그렇답니다. (허허) 총여 부회장이 주체이구요. 각 단대 과여학생회장들과 함께 꾸릴 계획입니다.

과에서부터 여학우들의 생각을 모으고 어떻게 주인되는 여대생을 세워내고 함께 여성차별을 풀어 갈 지를 과여학생회장님들과 꼼꼼하게 짚어 내면서 여학생 운동이 밑으로부터 힘을 실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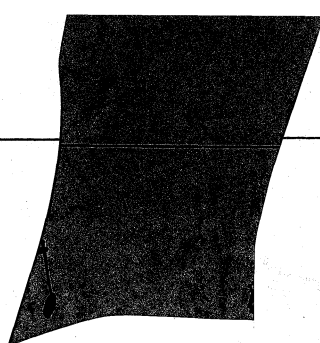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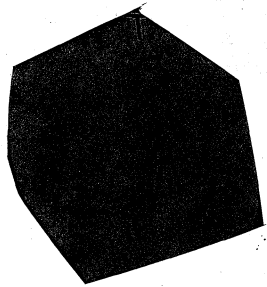
재미이요,  
사  
너~재!



재미가 안  
느낌니까?

애고,  
예쁜

우리 아가...



XXX 동아학생회는

여러서

친밀함

속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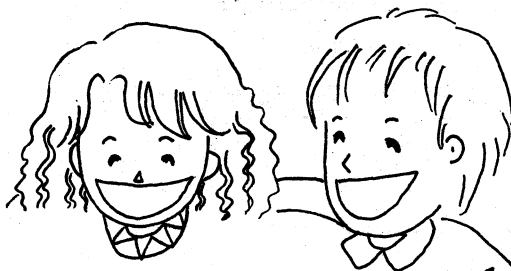
XXX

+자주여성 민주남성 대동학교 : 복현골에 첫발을 내딛는 신입생들에게 이제까지 받아온 왜곡된 성차별 교육에서 평등한 세상으로의 길을 조금이나마 제시하며 고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주는 행사이다. 또한 여학생회와 여학생회장, 그리고 여연을 적극적인 참여체로 세움으로서 이후 각 조직의 건설, 강화의 근거를 마련하는 장이 된다.

+자주여성 민주남성 대동한마당 : 자주 여학우, 민주 남학우 모두가 어우러져 평등하고 건강한 대학문화를 만들어 가는 대동의 마당이며 개별적이지 않고 경쟁적이지 않은 공동체와 사랑의 마당, 가정, 학교, 사회에서 난무하는 성차별 문화를 느끼고 고민하며 극복해 나가고자 노력하는 복현인 모두의 신나는 마당입니다.

+자치교실 : 각 과의 여연들이 공부한 결과를 발표하고 나누는 장이되며 여성 문제에 대한 인식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는 여성해방을 향한 소중한 걸음들이 될 행사입니다.

여성 해방



남녀 평등

인간 해방



# 불러보자,



## 행운 노래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최창연 작사·작곡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모두가 힘들잖아요 - 기  
 림의 그날 위해 싸우 - 는 - 동지 들이 있잖아요 -  
 혼자라고 느껴 질 때면 주위를 둘러 보세요 - 이  
 령계 많은 이들 모두 - 가 - 나의 동지 랍니다 -  
 우리 가는 길이 결코 쉽진 않을 거예요 - 때로는  
 모진 탄압에 좌절도 하겠지요 - 하지만  
 동지들과 함께 라면 두렵지 않아 - 노동  
 해방 그 날 까지 전진 전진 전진하자

★ 아.아, 민주정복! ★

한순간을 살아도 산맥처럼 당당하게  
 험목의 거리를 박차고 투쟁하는 삶이라면  
 죽음보다 더 깊은 절망의 밤을 태우고  
 눈보라 비바람속에 전진으로 전진으로  
 ≡: 청춘을 바쳐 싸우는 것이  
 투사의 운명이라면  
 반역의 세력 짚어 버리고  
 전선에서 다시 만나세.  
 아~아 민주정복  
 나철만의 희망이여  
 죽어도 다시 살아도  
 세우리라, 꽃 피우리라!!



# 활라

# 물부

? 이 세상 어딘가에!

김민기 작사·작곡

이 세상 어딘가에! 경동  
 과경화 넘치는 자유의바닷가 큰  
 물결물아쳐온다 너무도가련한우리 손  
 에 손놓치지말고 파도 와 맞서보아요  
 세상 어딘가에 있어요 분동  
 밧고운꿈나라 행복만 가득한나와 하늘  
 밧 자동차타고 나는 화사한웃입고 잘  
 생건어-음에 가 손짓 하는꿈-외나라

세상아-무때 도 있어요 정말히어-요 심너  
 시주분 떠파요 밤 하늘바-라파요 어  
 두운남-은세상 반짝이는작-은-별이  
 밤을지키는우리 힘겨운공장-의-밤  
 운공계-어나면 아쉬운 마음뿐하지  
 만이재개어요 은세상이파도와같이  
 물결물아쳐온다 너무도가련한우리 손  
 에 손놓치지말고 파도 와 맞서보아요

## \* 전진하는 여성 노동자 \*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도 우리는 당당한 이땅의 반  
 적 물고 잠든 아이 미래를 위해  
 바쁜 웃음 뽀치지 않고 싸우러 간다.  
 구사대 몽둥이보다 더 아픈 것은  
 해방의 하늘을 열지 못하고  
 운명에 맡겨 쏘려짐이다.  
 나가자 여성노동자. 자랑스런 동지여  
 여성해방(노동해방) 그날 위해  
 우뚝서라 해방전사여!



부현의 딸들이여  
여성 자주화의 맥을 이어  
희망의 하늘을  
열어 짓히자.  
숫구치는 기상으로

큰 힘 쓰는 계 7대 자주 총여학생회